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2026년 6월 5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지영 목사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8장 다 같 이
기 도 김민수1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여호수아 6장 1-9절 인 도 자
찬 양 여호수아 성을 쳤네 새벽찬양대
설 교 .. 『성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 이지영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59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2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3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서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후렴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 오늘의 말씀 < 여호수아 6장 1-9절 >

1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3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 을 그리하라 4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 니라 하시매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나 아갈지니라 하시니라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 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 르며 9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 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기도 담당

6/2(화)	6/3(수)	6/4(목)	6/5(금)	6/6(토)	6/8(월)
최형욱 안수집사	김충경 안수집사	신상헌 안수집사	김민수1 안수집사	전해용 안수집사	조왕영 안수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6월 5일(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 주의 말씀 앞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동안 저희는 여리고 성과 같이 굳게 닫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제의 성벽을 더욱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 세상의 관점에 의지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어, 현실의 닫힌 성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새문안교회가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당의 귀한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가게 하시고, 이곳 새문안교회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제직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지르는 여러 죄악과 실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영적 분별력 허락하시어,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